

2024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졸업

| 개인전 |

- 2026 《Immaterial: What Remains》(맥화랑, 부산)
- 2025 《흔적, 반향》(갤러리 휴, 부산)
- 2024 8th 맥화랑미술상 박영환展 《흔》(맥화랑, 부산)
- 2023 《우리가 지내온 세계에 서서 바라본 세상은 고요한 낮과 밤으로 우리를 지새우고》(전시공간 영영, 부산)
- 2022 《물이 마르기 시작할 때》(현대미술회관, 부산)

| 기획 |

- 2022 '상생' 프로젝트 (부산광역시 후원)

| 그룹전 및 아트페어 |

- 2025 ART Taipei (Taipei World Trade Center, 대만)
 - 2025 박영환, 이명진, 조희진 3인전 《Parthenon of Units》(갤러리까비넷, 서울)
 - 2025-2024 Kiaf SEOUL (코엑스, 서울)
 - 2025-2023 맥화랑연례기획 《10-200, 행복한국그림전》(맥화랑, 부산)
 - 2025 김현수, 김현엽, 박영환, 유은석, 이두원, 최례 6인전 《멀고 가까운 섬들》(맥화랑, 부산)
 - 2025 김세진, 박영환 2인전 《평/행》(띠오갤러리, 서울)
 - 2025-2024 ART BUSAN (백스코, 부산)
 - 2025 박영환, 슈무 2인전 《희어지는》(갤러리휴, 서울)
 - 2025-2024 ONE Art Taipei (타이페이, 대만)
 - 2024 어반브레이크 (코엑스, 서울)
 - 2024 BAMA (백스코, 부산)
 - 2023 《Peace, Piece, Place》(갤러리휴, 부산)
 - 2023 Gift Vol.1 여기에도 눈 (상상마당, 부산)
 - 2023 울산아트페어 청년작가지원전 'Attention Now 2023' (UECO, 울산)
 - 2023 《Notice》(상상마당, 부산)
 - 2022 《상생》(부산광역시 후원)
 - 2022 부산 청년미술로 꿈꾸게 하다 (금련산역 갤러리, 부산)
 - 2022 청년예술작가 전시회 《있다》(해운대 아틀리에/해리단 뮤지엄, 부산)
 - 2022 《소실》(갤러리 별일, 부산)
 - 2021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목포문화예술회관, 전남)
 - 2021 뇌 과학 x 예술 전시 《파동(波動)》(부산 과학문화거점센터, 부산)
- 그 외 다수.

| 퍼포먼스 |

- 2025 《흔적, 반향》 - Circle 퍼포먼스(갤러리 휴, 부산)
 - 2024 8th 맥화랑미술상 《흔》 오프닝 퍼포먼스 (맥화랑, 부산)
 - 2023 Gift Vol.1 여기에도 눈 오프닝 퍼포먼스 (상상마당, 부산)
 - 2023 Artist oenn x parkyounghwan dj mix (자체기획)
 - 2023 Notice展 오프닝 퍼포먼스 (상상마당, 부산)
 - 2023 박영환 개인전/퍼포먼스 경계:우리가 지내온 세계에 서서 바라본 세상은 고요한 낮과 밤으로 우리를 지새우고 (전시공간 영영, 부산)
 - 2022 '상생' 프로젝트 라이브 퍼포먼스 (부산광역시 후원)
 - 2022 '2022 아시아프' 라이브페인팅 (홍익대학교미술관, 서울)
- 그 외 다수.

| 작가노트 |

나는 초기 작업에서부터 구체라는 형태를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아 왔다. 구체는 단일한 기호가 아니라, 삶이 응축되고 분리되며 다시 흐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아내는 장치였다. 화면 속에서 구체가 머무르고 이동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은 삶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나의 시선을 드러낸다.

이 탐구는 회화적 조형에서 출발해, 화면을 구성하는 구조물—창과 벽, 건물의 프레임—과 연결되며 확장되었다. 창은 내부와 외부, 현재와 과거의 경계를 조직하며 동시에 삶이 시간·기억·감정·신체적 요소가 겹쳐 작동하는 다층적 구조임을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시각적 환경 안에서 먹의 레이어는 시간의 압력과 감각의 흐름을 담아내고, 존재가 형태를 바꾸며 머무는 지점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로 작동한다.

회화에서 진행되던 이러한 탐구는 자연스럽게 퍼포먼스와 설치로 이어졌다. 평면의 레이어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시간의 움직임이나 존재의 떨림 같은 것들을 신체와 공간을 통해 다시 다뤄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퍼포먼스는 한 순간의 행위가 남기는 흔적을 통해 삶의 구조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 지점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회화에서 구축해온 시간성과 조형적 흐름을 실제 공간 속으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최근의 작업은 이러한 다층적 삶의 구조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변형되는지를 관찰하는 데 집중한다. 구체가 남기는 흐름, 창 구조가 조직하는 시점, 먹의 레이어가 만들어내는 시간적 압력, 신체의 흔적이 개입하는 순간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삶이 단순한 연속이나 선형적 과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과 감각이 중첩되는 비선형적 구조임을 사유해보고자 한다.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탐구는 앞으로의 작업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 박영환 (2026)

| 전시서문 |

박영환 개인전 《Immaterial: What Remains》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서, 한때 선명했던 생각이 서서히 빛을 잃고, 사건이 시간의 층 속으로 가라앉은 뒤 —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된다. '무엇이 남는가.'

이번 박영환 개인전 《Immaterial: What Remains》는 사라짐 이후에도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 어떤 감각, 형태를 잃은 뒤에도 지속되는 시간의 밀도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는 전시이다. 작가는 화면 위에 남아있는 형상 대신,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상태를 응시한다.

박영환 작가는 먹과 한지를 기반으로 작업해온 한국화 전공 작가다. 그러나 그의 회화는 전통 동양화의 재현 방식이나 화면 구성과는 분명한 거리를 둔다. 화면 위에 등장하는 검은 구체는 산수나 건축적 공간 속에 이질적으로 배치되며, 관습적인 풍경의 질서를 교란한다. 이 구체는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작가의 내러티브 안에서 현재의 경험과 감정, 생각과 사건을 응축한 조형적 단위다. 색이 열어질수록 그것은 휘발되어가는 기억과 감정의 상태를 가리킨다. 화면은 사물을 묘사하기보다, 감정과 시간이 놓이는 밀도를 시각화하는 장이 된다.

먹은 한지에 스며들고 번지며, 형태를 고정시키기보다 흔들리게 한다. 축적과 번짐, 그리고 소거의 가능성을 동시에 품는 이 재료는 작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비물질성(immaterial)'의 감각과 맞닿아 있다. 여기서 비물질성이란 물질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물질에 고정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화면 위의 형상은 분명 시각적으로 강렬하지만, 그것이 지시하는 것은 형태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응축된 시간과 감정의 흐름이다.

작가는 그동안 회화 작업을 기반으로 퍼포먼스를 병행해왔다. 화면에서 출발한 몸의 움직임은 회화의 행위를 시간 속으로 확장시키는 방식이었다. 그의 회화는 분명 수행적 감각이 잠재해 있다. 먹을 올리고, 덧입히고, 지워내는 반복적 행위는 결과로서의 이미지보다 과정으로서의 시간을 드러낸다. 회화는 완결된 오브제가 아니라, 사건이 지나간 자리에서 여전히 진동하는 상태로 남는다.

이번 전시에서 함께 선보이는 도판 작업은 이러한 작가의 관심을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한다. 도자기 판 위에 그려지고, 불을 거쳐 굳어지는 과정은 시간과 물질의 관계를 다시 한 번 환기한다. 불이라는 사건을 통과한 표면은 고정된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번짐과 응축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사라질 것 같던 감정은 다른 형태로 전이되고, 휘발된 기억은 표면 아래에 잔존한다.

작가는 지금 자신의 작업이 하나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고 느낀다. 이미 형성된 조형 언어 위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을 반복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조건을 다시 질문하는 시점. 검은 구체는 여전히 화면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놓이는 공간과 밀도, 관계의 방식은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이번 개인전은 완결된 선언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 가시화된 장에 가깝다.

《Immaterial: What Remains》에서 '남아 있는 것'은 물질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라진 감정 이후에도 남는 흔적이며, 한 작가가 자신의 언어를 통과하며 붙들고 있는 질문의 상태다. 화면 위의 구체가 점차 열어지더라도, 그 자리를 지나간 시간은 지워지지 않는다. 남는 것은 형태가 아니라, 형태를 가능하게 했던 감각과 기억의 밀도다.

이 전시는 묻는다. 경험이 지나간 뒤, 감정이 휘발된 뒤, 작업이 하나의 국면을 넘어선 뒤에 — 무엇이 남는가. 그리고 그 남아 있음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다시 시작되는가.

/ 김정원 (맥화랑큐레이터, 2026)

| Education |

2024 Busan National University major in Korean painting

| Solo Exhibitions |

- 2026 Immaterial: What Remains (Gallery MAC, Busan)
- 2025 Trace, Echo (Gallery h-u-e, Busan)
- 2024 8th Gallery MAC Young Artist Prize Younghwan PARK – White (Gallery MAC, Busan)
- 2023 The world that we've been in, the world that we've been looking at Staying us through the quiet day and night (Exhibition space Yeongyeong, Busan)
- 2022 When the water starts to dry (Modern Art Center, Busan)

| Exhibition curating |

2022 Win-Win Project (sponsor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 Selected Group Exhibitions and Art Fairs |

- 2025 ART Taipei (Taipei World Trade Center, Taiwan)
 - 2025 Younghwan PARK, Myungjin LEE, Heejin JO – Parthenon of Units (Gallery Kabinett, Seoul)
 - 2025-2024 Kiaf SEOUL (Coex, Seoul)
 - 2025-2023 10-200, Affordable Paintings (Gallery MAC, Busan)
 - 2025 Islands Near and Far (Gallery MAC, Busan)
 - 2025 Sejin KIM & Younghwan PARK – Parallel (THEO, Seoul)
 - 2025-2024 ART BUSAN (Bexco, Busan)
 - 2025 Younghwan PARK & Shumu – Albescent (Gallery h-u-e, Seoul)
 - 2025-2024 ONE Art Taipei (Taipei, Taiwan)
 - 2024 URBANBREAK (Coex, Seoul)
 - 2024 BAMA (Bexco, Busan)
 - 2023 Peace, Piece, Place (Gallery hue, Busan)
 - 2023 Gift Vol.1 – Snow here, too (Sangsang Madang, Busan)
 - 2023 Ulsan International Art Fair (UECO, Ulsan)
 - 2023 Notice (Sangsang Madang, Busan)
 - 2022 Win-Win (sponsor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 2022 Make me dream of 2022 Busan Youth Art (Geumnyosan Station Gallery, Busan)
 - 2022 Youth Writers' Exhibition – Itda (Haeundae Atelier/Haridan Museum, Busan)
 - 2022 Disappeared (Gallery Star, Busan)
 - 2021 Jeonnam International Ink Biennale (Mokpo Culture and Arts Center, Jeonnam)
 - 2021 Brain Science x Art Exhibition WAVE (Busan Science and Culture Base Center, Busan)
- etc.

| Performance |

- 2025 Trace, Echo – Circle Performance (Gallery h-u-e, Busan)
 - 2024 8th Gallery MAC Young Artist Prize Younghwan PARK – White Opening Performance (Gallery MAC, Busan)
 - 2023 Gift Vol.1 Snow Here, too Opening performance (Sangsang Madang, Busan)
 - 2023 Artist oenn x Parkyounghwan dj mix
 - 2023 Notice Opening Performance (Sangsang Madang, Busan)
 - 2023 Park Young-hwan's Individual Exhibition/Performance Boundaries: Standing in the World We've Been to A world that stands by us still through day and night (Exhibition Space Yeongyeong, Busan)
 - 2022 Win-Win Project Live Performance (Sponsor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 2022 Live Painting "Asiaf"
- etc.

Younghwan Park Solo Exhibition
《Immaterial: What Remains》

Jeongwon KIM / GALLERY MAC, 2026

In the place where emotions have passed, where once-vivid thoughts gradually lose their brightness, and where events sink into the layered strata of time — we are finally compelled to ask: What remains?

Park Younghwan's solo exhibition 《Immaterial: What Remains》 begins with a question about a certain sensation that does not fully disappear even after vanishing, about a density of time that persists even after form dissolves. Rather than focusing on the image that remains on the surface, the artist gazes at the condition that continues to operate in the wake of its passing.

Trained in Korean painting and working primarily with ink and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Park's practice clearly distances itself from the representational conventions and compositional order of traditional East Asian painting. The black spheres that appear in his works are placed heterogeneously within landscapes or architectural spaces, disrupting the habitual logic of scenery. These spheres are not merely formal elements; within the artist's narrative, they function as condensed units of present experiences, emotions, thoughts, and events. As their color lightens, they point toward memories and feelings in the process of volatilizing. The canvas becomes less a site for depicting objects than a field for visualizing the density in which emotion and time settle.

Ink seeps and spreads into hanji, destabilizing rather than fixing form. Holding within it the simultaneous potential for accumulation, diffusion, and erasure, this material resonates with the artist's interest in "immateriality." Here, immateriality does not imply the negation of matter, but rather a state not confined or fixed by it. The forms on the surface are visually striking, yet what they ultimately indicate is not the shape itself, but the flow of time and emotion condensed within it.

Alongside his paintings, Park has previously extended his practice into performance rooted in painterly gestures. Movements of the body originating from the canvas served to expand the act of painting into lived time. His paintings retain a latent performative sensibility: the repetitive acts of applying, layering, and erasing ink reveal time as process rather than presenting image as result. The painting is not a completed object, but a state that continues to vibrate where an event has passed.

The ceramic panel works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further expand this inquiry into another dimension. Drawn upon clay and transformed through fire, these works reartic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and material. Though the surface appears fixed after passing through the event of fire, traces of diffusion and condensation remain embedded within it. Emotions that seemed destined to disappear are transposed into another form; volatilized memories persist beneath the surface.

The artist senses that his practice is currently undergoing a period of transition. Standing upon an established visual language, yet refusing to remain within repetition, he re-questions its very conditions. The black spheres still inhabit the surface, but the spaces, densities, and relational structures they enter are subtly shifting. This exhibition is less a definitive statement than a site where change becomes visible in process.

In 《Immaterial: What Remains》, what remains cannot be reduced to material substance. It is the trace that lingers after emotion has faded, the state of inquiry that an artist continues to hold as he moves through his own language. Even if the sphere on the surface gradually fades, the time that has passed through it cannot be erased. What remains is not form, but the density of sensation and memory that made form possible.

This exhibition asks: After experience has passed, after emotion has dissipated, after a body of work has crossed into another phase — what remains? And in that remaining, how does something begin again, here and now?